

# CCRT를 사용한 내담자 대인관계 패턴의 측정 : 소사례 종단 연구

하 정 혜 김 계 현

서울대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과 그 변화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Luborsky(1986)의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CCRT)와 그 분석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 도구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의 진행에 따른 패턴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상담 성과가 높은 사례들과 성과가 낮은 사례들을 대비시켜서 각 사례에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이 변화하는 양상을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로 클러스터 분석법과 시각적 분석법이 사용되었다.

상담의 목적을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때,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신체화 증상의 해결, 감정적 깊이의 변화, 이데올로기나 신념 체계의 변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Haley, 1963). 그 중에서 특히 내담자의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설명의 근본적인 가정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나 증상이 다양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담자의 대인관계상 문제에서 기인하며 대인관계적인 문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대인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진단해 봄으로써 내담자 특유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대인적인 진단을 근거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적절히 개

입했을 때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은 변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증상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Strupp & Binder, 1984).

정신분석 이론은 내담자의 관계 맺는 방식을 '전이' 개념으로 설명하였다(Davanloo, 1980; Freud, 1905, 1912). 정신분석 이론의 '전이' 개념에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적인 시각을 첨가시킨 사회-인지 심리 이론에서는 내담자가 개인 특유의 대인관계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의 신념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인물 원형(Person prototype), 도식(Schema) 등으로 개념화하였다(Horowitz, 1991; Singer & Salovey, 1991). 또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내담자가 가진 대인관계 패턴은 상담실 내에서 상담자에게도 반복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인관계 패턴은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명백한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함으로써 서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Haley, 1963; Strong & Claiborn, 1982). 여러 접근법들은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내담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상담실 밖에서나 상담실 안에서나 같다. 둘째,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내담자가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셋째, 왜곡되고 부적응적인 것뿐 아니라 정확하고 적응적인 것도 포함하며,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나 신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개인 특유의 상호작용 방식,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Bond et al., 1987; Luborsky, 1985, 1991).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담자의 상호작용 양식은 어떠한 접근을 지향하는 상담에서든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지속적인 경향이 있지만 현재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은 여러 이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진단과 그 변화 과정에 대한 평가는 임상가의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되어 왔다. 이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검증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대인관계 패턴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들은 최근에 와서야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대인관계 패턴의 측정은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질문지를 사용한 방법이며 두번째는 상담 과정의 축어록을 기초로 하여 내담자의 관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또한 축어록 분석법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나타나는 이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관계를 '형식적'으로

분석하는가 아니면 그 '내용'을 분석하는가 하는 것으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 그런데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고 상담 과정에 따른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패턴을 내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인 관계패턴의 내용과 주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 중 비교적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Luborsky(1986)의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CCRT) Method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CCRT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 연구를 하고 그 분석방법도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적(structural)인 측면으로서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 자체를 기술하는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 패턴의 과정적(procedural) 측면으로, 이는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상담자나 다른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주체가 어떤 내용으로 달라지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이 두 가지 흐름이 별개로 이루어져 왔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을 기술하고 내담자를 진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과정적 측면의 분석은 대인관계 패턴의 변화 여부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만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통해서도 각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측정함과 동시에 상담의 진행 과정에 따라 그 패턴이 어떠한 내용으로 변화하는지, 즉 구조와 그 변화 과정을 함께 탐색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상

## 방 법

### 1. 사례 중단 연구 방법

담이 성공적인 경우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이 변화할 것이라는 이론들은 있어 왔으나 (Davanloo, 1980; Haley, 1963; Strong & Claiborn, 1982) '내용'의 관점에서 상담의 성과와 패턴의 내용의 변화를 연결시켜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본 연구는 아래에 제기된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CRT 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각 사례에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이 구조적인 면과 과정적인 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1) 구조적인 면에서, CCRT를 통해 내담자들의 대인관계 패턴의 주제는 측정이 가능한가?

2) 과정적인 면에서, CCRT를 통해 상담 진행에 따른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 주제의 변화는 측정이 가능한가?

둘째, 상담이 성공적인 사례와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 간에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에 다음과 같은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1) 성공적인 사례의 경우, 상담의 초기에는 기대와 반응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보이더라도 후기에는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일 것이다.

2)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의 경우, 상담의 전후기에 관계없이 부정적이고 갈등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사례만을 표집하여 상담의 전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이러한 복수 사례 연구(multiple case study)는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를 위해 반복 연구 논리(replication study logic)에 따른다(Yin, 1984). 이러한 반복 연구를 위해서는 유사한 사례와 대비되는 사례를 분석하게 된다(Yin, 1984; Reandeu & Wampold,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별 중단 연구 방법의 장점을 이용하여 상담 성과 점수상 상위 두 사례와 하위 두 사례를 선정하여 상담 성과에 따라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 2. CCRT의 개요

Luborsky는 Helping Alliance Measure를 제작한 이후에 치료적인 협조체계 관계를 측정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연구하였다. 그는 먼저 일반적인 관계 패턴을 나타내는 개념들을 형성해 나갔다. 그는 상담 측어록에서 내담자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관계적 일화(Relational Episode, RE)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부모와의 어린시절의 관계뿐 아니라 현재 상담자와 상담실 내에서 발생하는 일화, 상담실 밖에서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화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여러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일화들은 거의 상담 회기마다 발견되었다. 여기에 주로 포함되는 다른 인물들은 부

모, 상사, 형제나 자매, 친구 그리고 상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Dahl et al., 1988; Luborsky, 1990).

RE에는 다음 세가지 내용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내담자의 기대(Wish, Need, Intention-W)로,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요구나 의도를 말한다. 둘째, 상대방의 반응(Response from Others-RO)으로 이는 RE에서 대상이 된 상대방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반응(Response of Self-RS)이며 이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내담자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W, RO, RS는 아래의 목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각각 35, 30, 31개의 유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1. CCRT 유목 목록**

---

**Wishes**

1. to be understood 이해받고 싶다.
2. to be accepted 수용되고 싶다.
3. to be respected 존중받고 싶다.
4. to accept others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싶다.
5. to respect others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싶다.
6. to have trust 신뢰감을 갖고 싶다. 믿고 싶다.
7. to be liked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
8. to be opened up to 누군가에게 열려졌으면 좋겠다.
9. to be open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
10. to be distant from others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싶다.
11. to be close to others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
12.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13. to be helped 도움 받고 싶다.
14. to not be hurt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15. to be hurt 상처 받고 싶다.
16. to hurt others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다.
17. to avoid conflict 갈등을 피하고 싶다.
18. to oppos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 반대하고 싶다.
19. to have control over others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다.
20. to be controlled by others 통제받고 싶다.
21. to have self-control 자제력을 갖고 싶다.
22. to achieve 무언가 달성하고 싶다.
23. to be independent 독립적이고 싶다.
24. to feel good about myself 내 자신을 좋게 느끼고 싶다.
25. to better myself 내 자신을 개선하고 싶다.
26. to be good 완벽하고 좋아지고 싶다.
27. to be like other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다.
28. to be my own person 본연의 내 자신이 되고 싶다.
29. to not be responsible or obligated 구속되고 싶지 않다.
30. stability 안정성을 가지고 싶다.
31. to feel comfortable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
32. to feel happy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33. to be loved 로맨틱한 사랑을 받고 싶다.
34. to assert myself 내 주장을 하고 싶다.
35. to compete with someone for another person's affection 사랑을 받기 위해 누군가와 경쟁해야겠다.

---

**Response from others**

1. are understanding 이해한다.

2. are not understanding 이해하지 못한다.
3. are accepting 수용한다.
4. are rejecting 거부한다.
5. respect me 나를 존경한다.
6. don't respect me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7. don't trust me 나를 믿지 않는다.
8. are not trustworthy 믿지 못하겠다.
9. like me 나를 좋아한다.
10. dislike me 나를 싫어한다.
11. are open 개방한다.
12. are distant 거리감이 있다.
13. are helpful 도움이 되다.
14. are unhelpful 도움이 되지 않다.
15. hurt me 나에게 상처를 주다.
16. are hurt 상처가 되다.
17. oppose me 나에게 대항하다.
18. are cooperative 협력적이다.
19. are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다.
20. are controlling 통제적이다.
21. give me independence 나에게 자율을 주다.
22. are dependent 의존적이다.
23. are independent 독립적이다.
24. are strong 강하다.
25. are bad 나쁘다.
26. are strict 경직되다.
27. are angry 화가나다.
28. are anxious 불안하다.
29. are happy 즐겁다.
30. loves me 나를 사랑하다.
4. feel respected 존경받았다고 느끼다.
5. like others 다른 사람을 좋아하다.
6. dislike others 다른 사람을 싫어하다.
7. am open 개방하다.
8. am not open 개방하지 않다.
9. am helpful 도움이 되다.
10. hurt others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다.
11. oppose others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다.
12. am controlling 통제적이다.
13. am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다.
14. am self-controlled 자제하다.
15. am independent 자립, 독립적이다.
16. am dependent 의존적이다.
17. am helpless 무능하다. 쓸모없다.
18. feel self-confident 자신이 있다.
19. am uncertain 불확실하고 혼동되다.
20. feel disappointed 실망하다.
21. feel angry 화나다.
22. feel depressed 우울해지다.
23. feel unloved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다.
24. feel jealous 질투심을 느끼다.
25. feel guilty 죄책감을 느끼다.
26. feel ashamed 부끄러움을 느끼다.
27. feel anxious 불안함을 느끼다.
28. feel comfortable 편안함을 느끼다.
29. feel happy 즐거움을 느끼다.
30. feel loved 사랑받았다고 느끼다.
31. somatic symptoms 신체화 증상을 느끼다.

---

## 연구 절차

---

### Response of Self

1. understand 이해한다.
2.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다.
3. feel accepted 수용되었다고 느끼다.

### 1) 사례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상담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상담 사례는 총 12사례였다. 수집된 자료들 중 조기 종결된 3사례를 먼저 제외시키고 그후에 남은 9사례 중에서 상담의 최종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Target Complaints, TCs)를 상담의 마지막에 실시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두 사례(사례1, 사례7)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두 사례(사례3, 사례9)를 선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5점 척도에서 상위가 4.7, 4.3점이었고 하위 두 사례가 3, 2.6점이었다.

## 2) 참여자

### (1) 상담자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9명의 상담자(남 3명, 여 6명)였다. 이들은 모두 교육학과와 심리학과에서 상담 및 임상 심리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이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상담자였다.

### (2) 내담자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1992년 3월에서부터 1993년 6월 사이에 학생생활 연구소에 상담을 받고자 자발적으로 찾아온 12명의 대학생들로 성별은 남 7명과 여 5명이었으며 연령은 20-25세였다.

## 3) 자료 수집 절차

### (1) 녹음

녹음 양해에 동의한 내담자에 한해 각 회기마다 상담을 녹음하였다. 상담 녹음은 120분용 테이프를 사용하였고 4사례 40회기의 회기당 녹음 시간은 최소 45분에서 최고 80분이었다.

### (2) 상담 성과의 측정

상담 마지막 시간에 상담자와 내담자는 주요 목표가 되었던 것을 함께 정하고 그 영역에서 상담을 통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상담 받기 전과 비교해 볼 때 증상이 '악화되었다'에서 '많이 좋아졌다'까지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ttle 등(1966)이 제작한 상담 성과 평가지(Target Complaints, TC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절차

### (1) 축어록의 작성

4사례 총 40회기를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축어록 작성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상담 전공 석사 과정 학생 5명이 참가하였고 작성된 축어록은 연구자가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들으면서 검토, 수정하였다.

### (2) Relationship Episode의 분류과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3명이 축어록에서 관계 일화(RE)를 발체하기 위해 평정하였다. 평정자들은 축어록을 읽으며 매 회기마다 RE선정 기준에 따라서 RE를 발체하였다. 각 평정자들은 축어록의 왼쪽 여백에 RE의 시작과 끝을 표시한다. 이 때 RE의 번호와 내담자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대상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 후 각 RE의 완전성(completeness)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발생했던 사건이나 대화가 포함되고, W, RO, RS,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완전성 평가에서 2.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5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RE는 CCRT 각 요소들을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RE 코딩에 있어서 평균 평정자간 일치도(Cohen's Kappa)는 .81(범위 .78 - .84)이었다.

### (3) W, RO, RS의 평정 과정

RE를 발췌했던 평정자와는 별도의 평정자 3명이 이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 과정 학생들이다. 이들은 Luborsky의 CCRT 코딩 체계를 숙지하고 10회의 훈련과 토론을 거쳐 평균 코딩간 일치도가 .70이상이 되도록 한 후, 각자 독립적으로 발췌된 RE에서 CCRT 유목들(W,RO,RS)을 나타난 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이 때 내담자의 기대와 일치된 RO, RS는 +로, 기대와 불일치하고 갈등적일 경우 -로 표시한다. 평균 평정자간 일치도(Cohen's Kappa)는 W의 경우 .70(범위 .67 - .73), RO의 경우 .73(범위 .69 - .75), RS는 .72(범위 .68 - .74)이었다.

### (4) 대인관계 패턴의 하위 패턴의 발견

상담 사례별 CCRT 자료를 통해 첫째로는 사례별로 대인관계 패턴에 어떤 구조적 측면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과 둘째로 이러한 대인관계 패턴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갈등적인지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패턴의 하위 패턴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이란 다양한 변수를 지니고 있는 자료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이들을 유사한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려 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하나의 RE에 대해 W-35개, RO-30개, RS-31개의 변수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5에서 +5점 사이의 점수가 코딩된 항목은 그 점수를 자료값으로 하였으며, 코딩되지 않아서 점수가 주어지지 않은 항목은 0으로 주어졌다. 자료들의 유사도(similarity)는 가장 널리 쓰이는 Ward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SAS Package를 통해 계산하였다. cluster의 갯수는 1-6개로 변화시켜가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 (5) 대인관계 패턴의 변화 추이를 검토

위와 같은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의 결과 분류된 클러스터별로 대인관계 패턴이 갈등적인지 긍정적인지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대인관계 패턴의 갈등적, 긍정적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회기별로 RO, RS의 점수를 통해 부정적 반응의 횟수와 긍정적 반응의 횟수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기에 해당되는 횟수의 비율과 후기에 해당되는 횟수의 비율을 구하여 t-test를 통해 비교함으로써 전, 후기에 따른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RE에 나타난 상호작용 대상별로 대인관계 패턴이 전, 후기에 따라 갈등, 긍정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6) 사례간 분석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한 두 사례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한 두 사례에 있어서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적인 면과 과정적인 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 결 과

### 1. 사례 분석

#### A. 사례 1

##### 1) 개요

이 사례의 상담자는 31세의 남자 상담자이며, 내담자는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21세의 남학생으로, 열등감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례는 1992년 3월에 시작되어 매회 50분 정도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10회를 끝으로 서로의 합의하에 종결되었다.

##### 2)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적 측면

표 2는 내담자가 가진 세 가지 대인관계 패턴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평균 회기는 각 클러스터가 어떠한 회기에 많이 출현했는지를 나타내 주는데 이를 통해 1번은 상담 전기에 많이 출현했으며 2, 3번 클러스터는 상담 후기에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각 클러스터의 W, RO, RS에 해당하는 숫자는 표1에서 설명했던 CCRT 유목들의 코드번호이다. 이 세가지 내용의 조합이 각 클러스터 특유의 대인관계 주제를 나타내 준다.

1번 클러스터의 경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 싶고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싶은 기대감을 갖지만(W-24, 26),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반응들은 자신의 완벽하려는 기대를 깨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되고(RO-15), 그 결과 매우 불안함을 느끼는(RS-27) 패턴을 보여준다.

2번 클러스터의 경우 후반기에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번 클러스터와는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고 싶은 기대로 수정하게 되고(W-9, 13, 24), 이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은 도움을 주고(RO-13), 그 결과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내용(RS-28, 29)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3번 클러스터는 후반기에 새롭게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발생한 대인관계 주제이다. 이전까지는 상대방에 대해 너무나 의식적이던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독립적이기 원하는 기대가 생기게 되었고(W-23), 이에 대해 자신은 계속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상대방은 독립적이라는 의도에 도움을 주지 않자(RO-14, 22), 실망하고 우울해 하는(RS-20, 21, 22) 주제이다.

##### 3) 대인관계 패턴의 과정적 측면

표2. 사례1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

Cluster	평균회기	N	WISH	RO	RS
1	3.96	29	24, 26	15(-)	27(-)
2	6.47	23	9,13,24	13(+)	28,29(+)
3	7.27	18	3,23	6,14,22(-)	20,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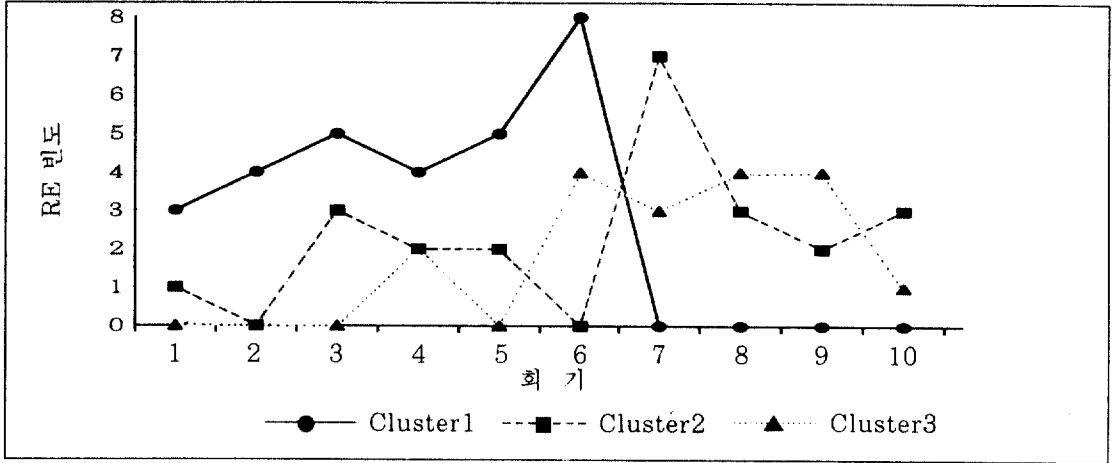


그림 1. 각 클러스터의 회기별 RE 빈도

표 3. 전, 후기 RO, RS의 부정/긍정 빈도표

전/후기	부정적/긍정적 RO/RS의 빈도				계
	RO부정	RO긍정	RS부정	RS긍정	
전기	33	10	35	8	43
후기	11	16	12	15	27
계	43	26	47	23	70

(1) 상담과정에 따른 전, 후기 패턴의 변화

그림 1은 상담 회기 진행에 따라 각 클러스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여준다. 2, 3번 클러스터는 6, 7회 이후에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호소 문제였던 1번 클러스터는 7회부터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초기에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회기 진행에 따라 편안함,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는 내용으로 주제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변화가 실제로 내담자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해결의 기점이 발견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상담 중의 회기 진행에 따라 W와 RO, RS의 반응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빈도상 갈등적인 반응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7회를 기점으로 전, 후기를 나누고 RO, RS가 부정적인 반응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변화되었는지 t-test 하였다.

t-test 결과 RO, RS의 경우 전기에 부정적이다가 후기에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p < .001$ ).

(2)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대인관계 패턴  
 상담자와의 RE의 경우 상담 전, 후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이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의 변화에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B. 사례 2

### 1) 개요

이 사례의 상담자는 여자 상담자로서 박사 학위와 상담 심리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다. 내담자는 남학생으로서 가족, 선후배 등과의 대인관계 문제, 자신의 성격, 행동, 습관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였다. 이 사례는 1993년 4월에 시작하여 50분씩 10회까지 진행하였다.

### 2)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적 측면

표 4는 사례 2의 내담자 대인관계패턴을 요약한 것이다. 처음 호소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1, 2번 클러스터이다. 2번 클러스터의 경우 내담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고도 수용되고 존중받기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W 2, 3, 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

하며 오히려 존중하지 않거나 경직된 반응을 보여 기대에 어긋나게 된다(RO-2, 6, 14, 26). 그로 인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지 않게 되고 우울해지는 패턴을 보였다(RS-8, 22).

또한 1번 클러스터의 경우 자신의 문제인 발표 불안을 해결하여 발표할 때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을 개선하고 싶은 기대(W-25, 31),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해 지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기 원한다(11, 34).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자기 주장을 하도록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RO-14). 그로 인해 이 내담자는 계속해서 발표 불안을 느끼고 대인 관계에서는 우울함과 실망감을 경험하였다(RS-27, 20, 22).

후기에 나타난 변화된 내담자의 패턴을 살펴보면 4번 클러스터로서 이는 1번 클러스터와 비슷한 동기를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발표 불안 문제를 털어놓고 싶고 그로 인해 자신을 개선하여 발표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기대를 표현하였다(W-9, 25, 31). 그 때 다른 사람들(특히 남자 친구)은 이해해 주고 자신의 경험도 개방하여 줌으로써 내담자에게 도움을 준다(RO-1, 11, 13). 그로 인해 내담자는 더욱 자신을 개방하게 되고 발표할 때 편안해지는 경험

표4. 사례 2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

Cluster	평균회기	N	WISH	RO	RS
1	3.13	15	11,25,31,34	14(-)	20,22,27(-)
2	5.83	12	2,3,9	2,6,14,26(-)	8,22(-)
3	5.92	13	11,13	1,3,13,18(+)	7,18(+)
4	8.08	12	9,25,31	1,11,13(+)	20,2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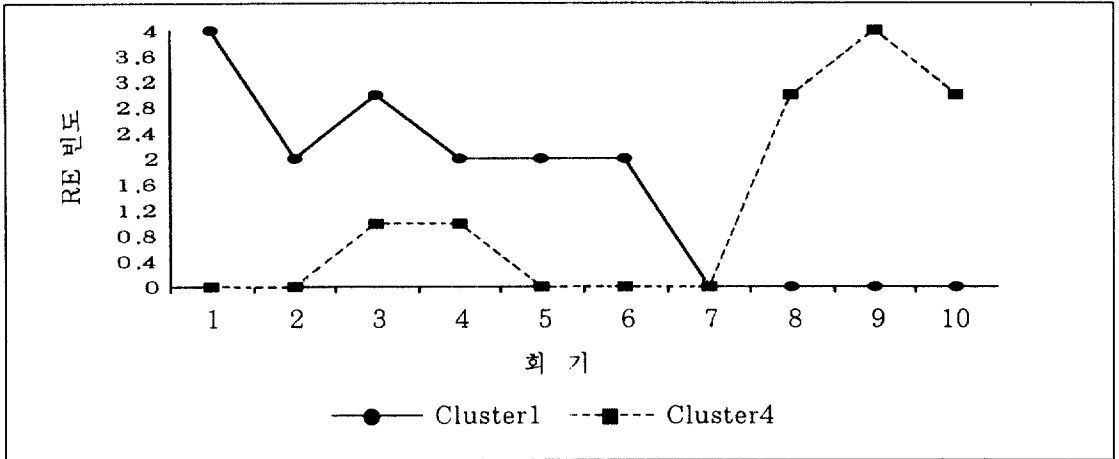


그림2. 1, 4번 클러스터의 회기별 RE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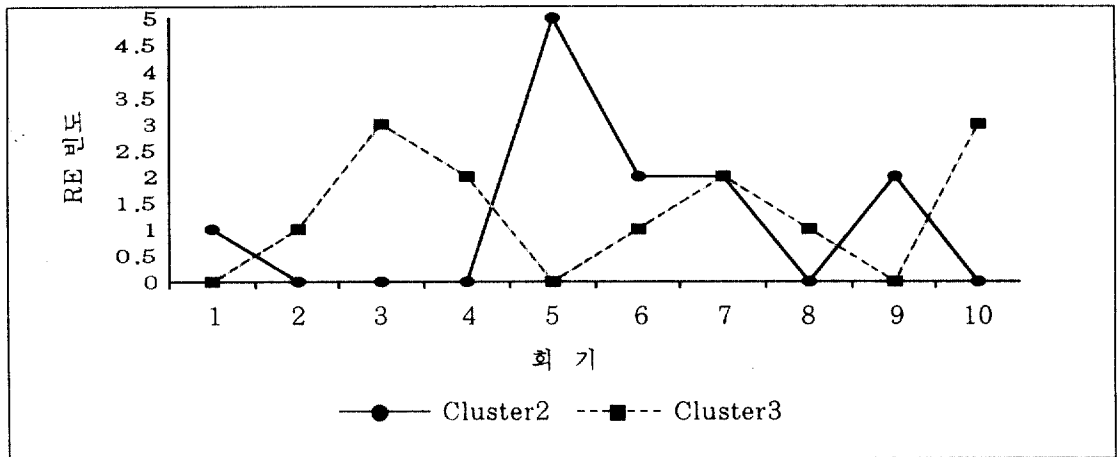


그림3. 2, 3번 클러스터의 회기별 RE 빈도

을 한 이후 발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다 (RS-7, 18, 28).

3번 클러스터는 내담자가 대인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연결된다. 내담자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기대를 가지는데 (W-11, 13), 예상과는 다르게 이해해 주고 자신을 수용하며 협력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RO-1, 3, 13, 18). 그로 인해 내담자는 대인 관계에서도 더욱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RS-7, 18).

### 3) 대인관계 패턴의 과정적 측면

(1) 상담과정에 따른 전,후기 패턴의 변화  
 내담자가 주로 호소한 문제로서 부정적인 대인관계 패턴인 1번 클러스터는 6회까지만 나타나고, 거의 정반대되는 내용인 4번 클러스터는 8회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대인관계 패턴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담자에게 문제였던 수용받고 싶어하

표5. 전,후기 RO, RS의 부정/긍정 빈도표

전/후기	부정적/긍정적		RO/RS의 빈도		계
	RO부정	RO긍정	RS부정	RS긍정	
전기	24	8	29	3	32
후기	6	14	6	14	20
계	30	22	35	17	52

표6. 사례 3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

Cluster	평균회기	N	WISH	RO	RS
1	3.07	14	3	6,14,17(-)	11(-)
2	4.00	15	11,17,31	2,14,15(-)	22,27(-)
3	8.31	19	3,29	20(-)	19,21(-)

는 2번 클러스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3번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3).

이러한 클러스터의 변화가 정말로 내담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 보기 위해서 각 회기에 나타난 클러스터에 있어서 긍정, 부정적인 반응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클러스터에 상관없이 회기에 따른 RO, RS의 진행도 살펴 보았다. 이 두 경우 전반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후기에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표 5).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변화의 시점으로 보여지는 6회를 기점으로 하여 전, 후기를 나누어 후 긍정, 부정에서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하였다.

t-test 결과 RO, RS는 전기에 W와는 부정적이고 갈등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후기에 긍정

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p < .001$ ).

(2)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대인관계 패턴  
특징적인 것은 남자친구의 RE에 있어서 상담의 전, 후기에 따라 의미있는 패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p < .001$ ).

### C. 사례 3

#### 1) 개요

이 사례의 상담자는 32세의 여자 상담자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 전공 석사 과정 중에 있다. 내담자는 서울대에 재학중인 2학년 여학생으로 특이한 성격 특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호소하고 있다. 사례 3은 1992년 11월에 시작되어 매회 50분 정도 10회까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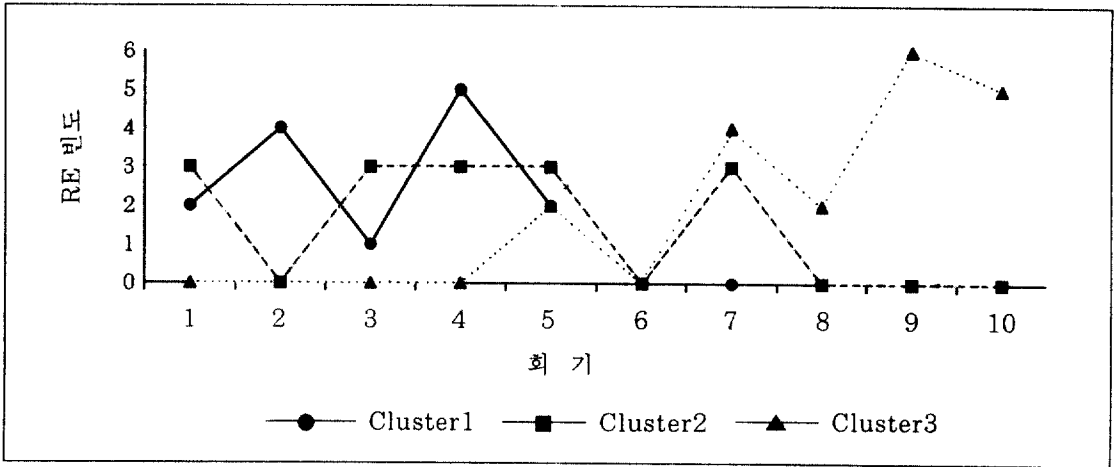


그림4. 각 클러스터의 회기별 RE 빈도

## 2)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적 측면

표 6은 사례 3의 내담자 대인 관계 패턴을 요약한 것이다. 1번 클러스터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기대(W-3)를 가지지만 타인의 반응은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으며(RO-6) 도움이 되지 않고(RO-14) 오히려 자신에게 대항하는 반응들(RO-17)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내담자도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는(RS-11) 반응을 하게 되는 패턴이다.

2번 클러스터의 경우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피함으로(W-17) 가까워지고(W-11), 그 과정안함을 느끼고 싶은 기대(W-31)를 가진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은 자신의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RO-2),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며(RO-14) 상처를 주는(RO-15)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 결과 내담자는 매우 우울해지고(RS-22) 불안함을 느끼는(RS-27) 반응 내용을 보여준다.

3번 클러스터는 존중받고 싶고(W-3), 다른 사람에게 특히 부모님의 통제로부터 구속되기 싫어하는 기대(W-29)를 보여 준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전히 통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내담자는 자신을 통제하는 상대에 대해 화를 내며(RS-21) 자신의 행동 방향에 대해 불확실감과 혼동스러움(RS-19)을 경험하는 것이다.

## 3) 대인관계 패턴의 과정적 측면

그림 4를 통해 사례 3의 경우 1, 2번 클러스터는 비교적 전기에 나타나고 있고 3번 클러스터는 5회 이후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부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상담에서의 화제가 전환된 결과라고 보인다.

## D. 사례 4

### 1) 개요

이 사례의 상담자는 여자 상담자로서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며 현재 상담 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다. 내담자는 현재 서울대학교에

표7. 사례 4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

Cluster	평균회기	N	WISH	RO	RS
1	4.51	25	25,26	17,23(-)	17,22,27(-)
2	7.12	17	2,11	12,14(-)	22,27(-)
3	7.31	13	1,3,7	2,4(-)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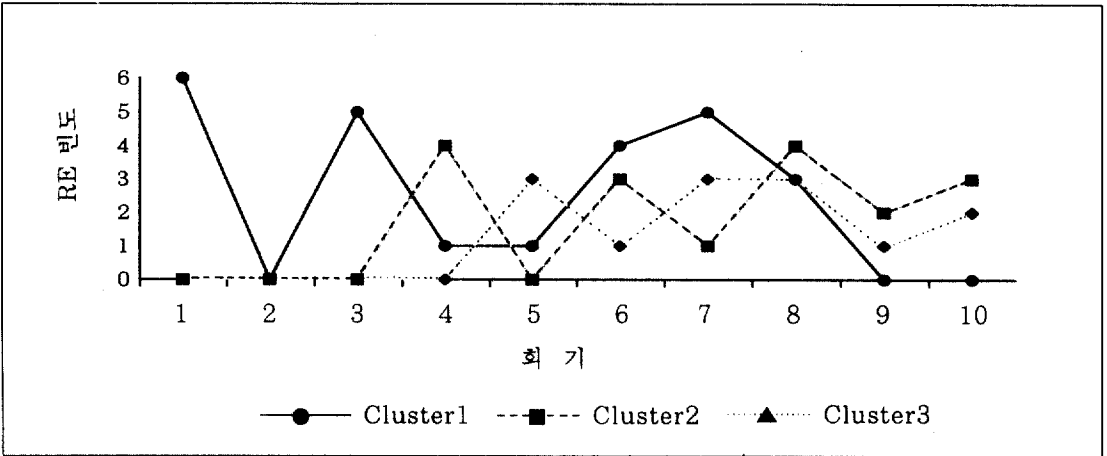


그림5. 각 클러스터의 회기별 RE 빈도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이성과의 문제를 주호소 문제로 하였고 그 외에도 완벽주의적인 성격, 불규칙적인 행동과 습관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였다. 사례 4는 1993년 3월에 시작되어 학생 생활 연구소에서 매회 50분 정도 10회까지 진행하였다.

## 2)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적 측면

표 7은 사례 4 대인 관계 패턴을 요약한 것이다. 1번 클러스터는 자신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에 관한 문제이다. 자신을 개선하고 완벽하고 좋아지고 싶은 기대와 욕구를 가지지만(W-25, 26), 자신의 규모 없는 삶에 비해 상대방은 매

우 독립적으로 잘 살아나가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대항하는 반응을 보인다(RO-17, 23). 그로 인해 내담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무력하고 쓸모없게 생각하며 우울해 하고 자신의 미래에 불안함을 느끼는(RS-17, 22, 27) 패턴을 보인다.

2번 클러스터는 여자 친구와의 갈등을 말해 준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수용되고 싶고 그와 가까워지고 싶은 기대를 가지지만(W-2, 11) 여자 친구는 거리감을 두고 자신의 기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RO-12, 14). 그로 인해 내담자는 우울하고 불안함을 느끼는(RS-22, 27) 패턴을 보인다.

3번 클러스터는 내담자가 여자 친구에게 적

표8. 사례간 분석 요약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1. 성과 점수 (TCs)	4.7	4.3	3	2.6
2. 내담자 성	남	남	여	남
3. 상담자 성	남	여	여	여
4. cluster 수	3	4	3	3
5. 부정→긍정 패턴변화	부정→긍정	부정→긍정	부정→부정	부정→부정
6. 주요 event	6회	7회	없음	없음
7. 중요인물과 상호작용의 변화	상담자 (부정→긍정)	남자 친구 (부정→긍정)	없음	없음

극적으로 다가갔지만 거절 당한 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내담자는 여자친구로부터 이해받고 존중받고 그가 자신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본다(W-1, 3, 7). 그러나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한다(RO-2, 4). 그 결과 내담자는 실망하고 우울해지는(RS-20, 22) 패턴을 보인다.

### 3) 대인관계 패턴의 과정적 측면

상담의 진행 과정에 따라 각 클러스터에서 RE빈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그림 5와 같다.

첫번째 클러스터는 지속적인 문제로 상담 초반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두번째와 세번째 클

러스터는 4, 5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변화가 내담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각 회기에 나타난 W와 RO, RS반응의 부정적, 긍정적인 살펴보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 2. 사례간 분석

다음은 대인관계 패턴의 변화가 상담의 성과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사례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성공 사례의 경우 관계 일화의 분석에서 상담 초기에는 부정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보였지만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긍정적인 대인관계 패턴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상담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한 실패사례 내담자들의 경우 상담 과정 중의 관계 일화도 모두 부정적인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둘째로 성공, 실패사례 모두 대인관계 패턴에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공사례의 경우에는 처음에 가지고 왔던 호소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으로 패턴이 변화되었지만, 실패사례의 경우 화제가 전환된 것일 뿐 실제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째로 성공사례의 경우 변화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상호작용 대상이 존재하였다. 사례 1은 상담자, 사례 2는 남자 친구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네째로 상담이 성공적인 경우 상담 과정에서 특별한 주요 이벤트(event)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담이 성공적인 경우는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다가도 어떤 기점을 계기로 갑자기 긍정적인 내용으로 변화되는 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적인 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은 대상에 따라서 하위 패턴들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여섯째로 사례 4의 경우 가장 상담 성과를 낮게 평가했던 사례인데, 성공적인 사례에 비해서 상대방의 반응(RO)보다 자신의 반응(RS)에 있어서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는 체계가 왜곡되어 있고 편협할수록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알 수 있다.

## 논 의

### 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첫째로 사례 분석에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

턴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CCRT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을 때 각 사례마다 내담자 고유의 대인관계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CCRT 도구의 구인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 모두 '우울감'이라는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를 대인적인 맥락에서 재진단하였을 때는 우울의 원인이나 맥락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사례 2의 경우 수용되지 못하는 데 대한 반응이었고, 사례 4의 경우 완벽해지고 싶어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 때문에 우울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내담자의 임상적인 증상이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 보다는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대인관계 패턴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들(Benjamin, 1982; Benjamin et al., 1986; Eckert, Luborsky, Barber, & Crits-Christoph, 1990; Mclemore, & Benjamin, 1979)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CCRT도구가 내담자가 호소했던 증상이나 문제의 원인적인 부분을 설명하여 줄 수 있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해 줌을 시사한다.

둘째로, 사례 분석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내담자들이 하나의 대인관계 패턴 상의 주제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개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인관계 패턴이 주요한 하나의 내용을 가지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Horowitz 등(1984)의 연구와 Crits-Christoph, Demorest, Connolly 등(1990)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세째,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내담자



와 상담자의 새로운 관계 경험이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는데(Anchin & Kiesler, 1982; Strong & Claiborn, 1982), 사례 분석 결과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례 1의 경우 상담 전기에는 상담자와의 대인관계 패턴이 다른 사람과의 패턴과 일치했지만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해 나갔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네째로 내담자들의 대인관계 패턴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킨 사례와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사례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축어록 상에 나타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사례 1과 2의 경우는 해결점으로서의 방향 전환, 문제에서 벗어난 내담자의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 칭찬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강화시키는 긍정화의 시도, 내담자에게 능력을 부여하는(Empowering) 노력, 목표 중심적이며 해결 중심적인 대화의 노력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사례 3과 4의 경우는 이러한 개입이 별로없이 계속 내담자가 상담 시간에 내놓는 문제를 계속 따라가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화제를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나열하는 수준의 '문제 중심 상담'이 진행될 경우 자신의 고통만을 탐색하다가 어떠한 해결책도 모색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상담 기법적으로도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대신 '해결된 상태는 무엇인가?'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로 초점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김계현, 1993)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섯째로 CCRT를 통해 측정된 대인관계 패

턴의 변화와 내담자가 측정된 상담 성과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CCRT가 상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상담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내담자가 문제의 심각도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들을 사용하거나, 증상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관찰시간 신뢰도가 낮은 문제, 연구의 주제와는 다른 개념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상담의 성과는 그 상담의 목표, 개입, 호소 문제와 관련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담의 목표와 개입 방법이 내담자의 대인 관계에 있을 경우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CCRT 도구가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는 상담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2.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극복할 후속 연구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상담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본 연구는 Target Complaints(TCs)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행동상의 변화, 문제 증상의 감소 정도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담 성과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본 연구는 CCRT 도구 자체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반적인 내담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술하였지만 변화의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상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지각한 사례의 경우 내담자의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는 이벤트(event)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요인이 내담자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분석해 보는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Elliott, 1984, 1985; Rice & Greenberg, 1984). 또는 변화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조체제(working alliance)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상담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진 사례에 있어서는 상담자와의 대인관계 패턴이 다른 대상과의 대인관계 패턴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세째로 본 연구에서는 CCRT 도구 자체의 타당성 확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 상담 과정 변인과의 연결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진행된 상담 과정-성과 연구들은 조기 종결을 기준으로 상담 성과를 구분하였다(조성진, 1993; 정문경, 1993). 즉 조기에 상담을 중단한 경우를 실패 사례,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성공 사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상보성이 낮을수록 조기 종결의 가능성이 많으며, 상보성이 높을수록 상담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담이 지속된 경우에도 어떤 사례에서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변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초기의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 상담이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화를 가져온 사례의 경우 그렇지 못한 사례에 비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관계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

우 상담 성과의 구분에 CCRT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CCRT 결과 변화를 보인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며 또 변화를 일으킨 사례의 경우 실제로 반사회적이거나 비상보적인 패턴(Beier, 1966; Kiesler, 1983)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요망된다. 또한 실제 언어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을 때 성공과 실패 사례에 있어서 긍정화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권정혜(1991). 임상에서의 단일사례 실험연구법, 한국심리학회 편. **현장연구방법론** 각론, 서울:성원사.
- 김계현(1991). 상담 과정 연구에서 집단단면연구와 시계열사례종단연구의 비교, 한국 대학 상담 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 \_\_\_\_\_(1993). 대학에서 단기 상담의 적용,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상담 연구소 이전기념 심포지움 발표 논문.
- 장상호(1977). **행동과학의 문제와 방법론**, 서울:교육출판사.
- Anchin, J. C., & Kiesler, D. J.(1982).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New York: Pergamon.
- Barber, J., Crits-Christoph, P., & Luborsky, L.(1990). A Guide to the CCRT Standard catego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In Luborsky, L. & Crits-Christoph,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 New York: Basic Books.
- Battle, C. G., Imber, S. B., Hoehn-

- Saric, R., Stone, A. R., & Frank, J. D.(1965). Target Complaints are criteria of improvem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0, 184-192.
- Bond, J., Hansell, J., & Shevrin, H.(1987). Locating transference paradigms in psychotherapy transcripts: Reliability of relationship episode location in the CCRT Method. *Psychotherapy*, 24, 736-749.
- Crits-Christoph, P., Demorest, A., & Connolly, M.(1990). Quantitative assessment of interpersonal themes over the course o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27, 514-521.
- Dahl, H., Kachele, H., & Thomas, H.(1988). *Psychoanalytic process research strategies*. New York: Springer-Verlag.
- Haley, J.(1963). *Strategies of psychotherapy*. Orlando, FL:Grune & Stratton.
- Horowitz, M.(1991). *Person Schemas and maladaptive Interpersonal Patter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hnson, M., Popp, C., Schacht, T., Mellon, J., & Strupp, H.(1989). Converging evidence for identification of recurrent relationship themes : Comparison of two methods. *Psychiatry*, 52, 275-288.
- Kiesler, D. J.(1982). Interpersonal theory for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In J. C. Anchin & D. J. Kiesler(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NY: Pergamon.
- Leary, 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New York:Ronald Press.
- Luborsky, L., Barber, J., & Crits-Christoph, P.(1990). Theory-based research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81-287.
- Luborsky, L., & Crits-Christoph, P. (1990).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Crits-Christoph, L., & Mellon, J.(1986). Advent of objective measures of the transference concep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No 1,39-47.
- Mclemore, C. W., & Benjamin, L. S.(1979). Whatever happened to interpersonal diagnosis? A psychosocial alternative to DSM-III. *American Psychologist*, 34, 17-34.
- Orlinsky, D., & Howard, K.(1986). Process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In S. Garfield & A.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3rd ed., pp311-381). New York:Wiley.
- Singer, J., & Salovey, P.(1991). Organized knowledge structures and

personality, In Horowitz, *Person Schemas and maladaptive Interpersonal Patter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trong, S. R., & Claiborn, C. D.(1982). *Change through interaction: Social Psychology Proces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Wiley.

Yin, R. K.(198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Cli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s Measured by CCRT Method - Time-series Multiple Case Study -

Jung-Hye Ha and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introduce the Luborsky's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1986)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cli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and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ontents.

The data were gathered at the Counseling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a sample pool of the 12 dyad, two cases that were highest in the outcome(Target Complaints Scale) and two cases lowest in the outcome were selected. All of the 40 session records were transcribed into verbatims. Three coders trained in CCRT coding system selected Relationship Episodes(RE) from each transcript. Then three other coders analyzed Wish(W), Response of Others(RO), Response of Self(RS) from the REs. To analyze the obtained data, the cluster analysis was used.

As the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all the 4 cases showed their uniqu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s. And these patterns can explain the clients' symptoms and problems in the context of interpersonal aspects. In the successful cases, in the early phases, there were shown negative and conflicting patterns between the wishes and responses. But in the later phases, the conflicts were resolved. In unsuccessful cases, it appeared that there were consistent conflicting interpersonal patterns regardless of the stage of the counseling. Some point suggested by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discussed.